

주일오후 가정예배 순서지

-일 시 : 2022년 3월 27일 오후 2시 30분

-장 소 : 가족들과 함께 정해진 장소

- 묵상기도 / 각 자
- 기 원 / 인도자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경배찬송 / 새292장(통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 기 도 / 가족 중에서
- 성경봉독 / “출 26:30-37”(구약p.122) / 가족 중에서
- 말 씀 / “성소의 휘장”/인도자

성막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역할을 하는 외부의 휘장이며, 또 하나는 성소와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 사이를 구별하는 내부의 휘장입니다. 이렇듯 성막은 휘장에 의해 안뜰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의 세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기본적 의미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성막은 그러한 거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러한 휘장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며 그러한 방법을 휘장은 무엇이라 말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휘장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죄인으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리우는 것이었습니다. 지성소는 이스라엘의 대표자 대제사장이 일 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나아가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죄 사함 받으러 들어가는 문이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룩한 곳을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성소의 휘장이었으며 그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직접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 문을 찢히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그분과 아름다운 교제에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것이며 생명의 축복에 거할 것입니다.

2. 휘장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문입니다.

휘장을 찢히고 성소로 들어가면 곧바로 금 향단을 접하게 됩니다. 금 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데, 이 향단은 꺼지지 않고 항상 피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제나 향긋한 향 내음에 접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언제나 성령님의 도고 기도를 힘입게 되며 그러한 상태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주께 상달되는 복된 기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위해 정욕에 따라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성령께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기도를 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축복이 되는 복된 기도가 되도록 합시다.

3. 휘장은 영원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휘장 안에는 언제나 꺼지지 않고 빛을 발하는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안은 언제나 밝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평안함과 안락함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며 그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휘장 안의 불빛이 언제나 꺼지지 않고 환하게 타올랐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의 복된 생활 역시 때로는 환란과 핍박이 닥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4. 휘장은 생명의 떡을 얻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휘장 안에는 분향단과 촛대와 더불어 제사장이 먹을 떡이 진설되어 있었습니다. 이 떡은 일반인은 먹을 수 없었고 오직 성소 안으로 들어온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얻게 되어 결코 굶주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 있습니까? 굶주린 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먹을 생명의 떡이며, 우리가 마실 영생하는 생수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양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문입니다.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빛의 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양식을 얻게 하는 생명의 문입니다. 이러한 문이 구약에서는 두꺼운 휘장으로 막혀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보혈로써 환히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믿고 그 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문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에게는 환한 빛의 세계, 평안의 세계, 그리고 구원의 축복과 영생의 떡을 얻는 복된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저하지 맙시다. 망설이지도 맙시다. 우리 앞에 활짝 열린 구원의 문, 축복의 문으로 들어갑시다. 그 문 뒤에는 영원한 축복과 안식의 세계, 사랑이 충만한 기쁨의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 기 도 / 가족 중에서
- 파송찬송 / 새295장(통417) 큰 죄에 빠진 나를
- 주기도문 / 다같이

*광고 :

1. 금주 수요일(3월 30일) 저녁 예배는 본당에서 구역연합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 교우들의 건강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과 모든 공무원을 위해, 그리고 학생의 정상적인 등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3.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소독 등의 생활화와 많은 사람과의 접촉 및 모임 자제에 힘쓰며, 3월에도 거리 두기 삶을 잘 실천하여 건강하도록 기도합니다.